

# “어른과 어린이 사이, 경계서 흔들리는 광주 14세의 ‘목소리’ 생생하게 담아”



시타미치 모토유키 작가

지난해 11월 광주 충장중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찾아가는 현대미술 스킨 프로그램’은 흥미로웠다. 14세, 중 2 아이들은 조금은 씩스러운 듯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느끼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써내려갔다. 친했던 친구와의 사이에 나도 모르게 생겨 버린 경계, 어른들과 나 사이의 경계, 길고양이와 나 사이 경계의 무너짐 등 재미난 내용들이 많았다.

이날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는 일본 작가 시타미치 모토유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 세계 곳곳의 14세 아이들과 함께 ‘주변의 경계선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광주 지역 14세 중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비엔날레 작품이 됐다. 시타미치 작가의 ‘14세&세계&경계’는 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지역 일간 신문에 연재하고 기사가 실린 ‘지면 자체’를 전시하는 게 작품의 완성이다. 지난해에는 홍콩 ‘명보(明報)’에 10회에 걸쳐 연재했으며 2016년에는 일본 오카야마 산요신문(10회), 일본 아이치 뉴시치 신문(20회)에 작품을 실었다.

광주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16일부터 ‘광주일보’ 1면에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어른들의 기사와 함께 모두 13회(매주 금요일자) 실린 후 ‘지면 그대로’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2018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된다.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 주제 아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에서 열리는 정연심·이완론 큐레이터 섹션 참여작이다.

시타미치 작가는 29~30일 살레시오중과 문흥중에서 다시 워크숍을 갖고 이 내용도 작품으로 만들 예정이다.

##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日 시타미치 모토유키 ‘14세&세계&경계’

광주일보 1면 13회 연재 ‘지면 그대로’ 비엔날레 전시 정치·경제 등 어른들의 커다란 이슈와 함께 게재 의미 홍콩·일본서도 프로젝트 진행 “어른들도 함께 즐기길”



지난해 11월 시타미치 모토유키 작가가 충장중에서 ‘14세&세계&경계’를 주제로 진행한 수업 모습.

시타미치 작가는 이번 ‘작품’을 문화면이 아닌 지방자치면이나 사회면에 신기를 바랐다. 정치, 국제 등 신문에 실린 커다란 이슈 가운데 ‘14세 아이들의 ‘사소한 목소리’를 듣는 건 의미있는 작업이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풍경이나 이야기를 사회 속에서 발표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제 작품은 미술관보다는 공공의 장소에서 발표되길 원했고, 다행히 전 세계 신문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재가 문화면에 다른 전시 정보와 함께 실린 순간, ‘아트’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여질 가능성이 있죠. 웬만하면 중학생의 ‘목소리’를 다른 여러 어른들의 뉴스나 이슈와 같이 올려 여러 사람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문을 보는 어른들은 자신이 아이였던 시절, 강렬하게 세계를 바라보던 감각을 되찾아 때론 생각에 잠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에게는 학교 수업이 커다란 세계와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신문에 게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중학교 수업은 실제 사회와 접점이 많지 않는데 미술이나 창의적인 작업의 재미는 발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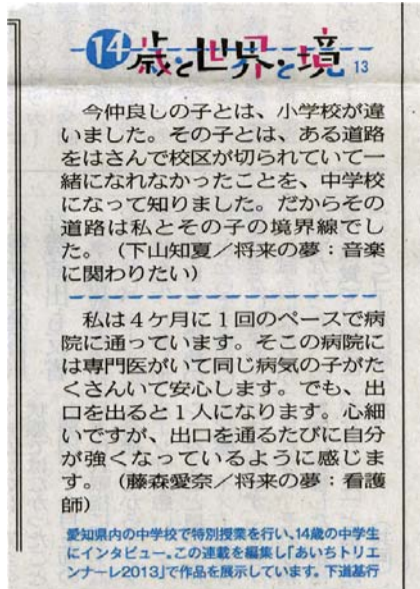
고 어떤 사람과 공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정성껏 만든 요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반응을 보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 연령대 가운데 시타미치 작가가 ‘14세’ 중학생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어른과 어린이 사이, 경계선에서 흔들리는 나이입니다. 불안정한 시기이죠. 어른다운 의견을 낼 때는 있지만 어떤 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답할 때도 있어요. 학교는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어른(나를 포함한)이 이미 의문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에 의문을 품고 또 저항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들은 매일 매일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의 14세들에게선 같은 점도, 다른 점도 발견했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의 수업은 그에게 흥미로웠다.

“각국 아이들이 써내려간 글에는 친구와 부모의 관련성이나 종교처럼 나라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일본 아이치현 ‘뉴시치 신문’에 실린 일본 14세들의 이야기.

는 중학생들의 행동방향이 학교와 가정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죠.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건 친구끼리 하는 신체접촉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이 워크숍에서 중요한 건 ‘아트’를 통해 통나무질 없는 낯선 어떤 것을 만나는 거예요. 저처럼 ‘일본인’이면서 ‘예술가’인 만39세 아저씨가 찾아와 “아무말도 좋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도하죠. 꽤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학생도 있었죠. 월급 이야기, 영토 이야기 등등. 역사와 영토에 대한 질문에 두근거리며 제 의견을 이야기해주고,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작업이나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상을 관찰해보기’, ‘의문을 품으면 스스로 생각해보기’, ‘발표하고 어떤 사람과 공유하기’다. 창의적인 직업에서 중요한 덕목들로 아이들과의 수업에서도 강조하는 것이다.

“제가 중학생 일 때 라디오 채널을 틀어놓고 공부를 했는데 그 채널에서 여러 학생들의 고민이나 음악이 다양하게 흘러나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번 신문 연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본 신문 연재 때 해외에서 이주해온 학생의 이야기, 성별에 관련된 의문, 어른과 학교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학생의 말은 때때로 어른들이 이미 익숙했던 일을 다시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그러니 발표하는 학생도 읽는 어른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예술난장 굿판’ 공연 모습.

## 夜! 문화랑 다시 놀자

내일 대인시장·17~18일 남광주시장 야시장 재개장 용산생활체육공원 내일 야외플장·돛자리 영화데이트

폭염 기간에 쉬었던 주말 문화행사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다.

대인예술시장의 ‘야시장 별장’이 오는 18일과 25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 까지 열린다. 소장 가치가 있는 예술을 소소하게 누리자는 의미인 ‘안분지족(安分知足)’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베품시장이 펼쳐진다.

대인예술시장 유별난예술극장에서는 도깨비들이 놀이판을 벌인다. ‘2018 광주예술난장 굿판 소통마당’의 하나인 ‘도깨비 썰전’이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도깨비 썰전’에서는 천방지축 도깨비 박사들의 구수한 입담 대결이 펼쳐진다. 이운선 남도민속학회 회장과 김성범 삼진강도깨비마을 총장이 도깨비 이야기를 풀어낸다. ‘도깨비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깨비와 귀신은 다른 존재일까?’ 등 도깨비와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날 행사에는 타악 그룹 ‘일쭉’의 장구 연주, 삼진강도깨비마을 주민들의 ‘도깨비인형극’, 창작 그룹 ‘판박’의 판소리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 오는 관객들을 위해 ‘키즈존’도 마련된다. ‘작정인형’과 소원 팔찌를 만들어보고 요리체험도 할 수 있다. 특별전 ‘일곱 번째, 한평 갤러리’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대인예술학교에 다닌 청소년들이 대인문화창작소 ‘지움’ 입주 작가들과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33-1420.

남광주밤기차야시장도 다시 출발한다. 광주시 동구는 17일부터 이를 간 ‘칠석날’을 맞아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을 새단장에 운영한다. ‘칠석날, 어쭈구리와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의 새로운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야시장에서는 남광주시장만의 특색을 담은 행사가 준비됐다.

전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다라이’를 이용한 각종 놀이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또한 남광주야시장 캐릭터 ‘남생이’가 시장을 찾은 고객들과 함께 80년 전 시간여행을 떠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떡거리도 빠질 수 없다. 남광주야시장에서는 시시때때로 울리는 경적소리에 맞춰 새로 나온 메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의 062-608-2704.

광주시 동구 용산생활체육공원에서는 18일 오후 7시30분부터 ‘돛자리 영화데이트’를 연다. 이번 상영작은 좀비 바이러스를 다룬 액션·스릴러물 ‘부산행’이다.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어린이 야외플장’을 연다. 문의 062-608-241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남광주밤기차야시장’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먹거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훔플러스 건너편

관주흥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